

봉사 경험 있다 43% 장기 기증 긍정 60%

본지, 청·장년 불자 대상 '나눔지수' 설문
'나눔 통해 삶의 가치 추구' 인식 전환 뚜렷

관련기사 A3·4·5·6면

불자 10명 중 4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나 해 본 경험이 있어 불자들의 자원봉사 참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의 불자들이 장기기증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후원문화는 아직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본지가 전국 불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눔지수'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번 설문은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이라는 봉축 주제에 맞춰 불자들이 얼마나 나누며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설문은 자원봉사, 후원, 장기기증, 재능나눔 등 4개 분야에 대한 참여도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의 사찰신도와 청년회, 대불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4월 한 달 간 우편으로 이뤄졌다. 설문대상자 2천명 중 응답자는 631명이었으며, 남성 247명(39.1%) 여성 374명(59.3%)의 비율을 보였다.

먼저 자원봉사와 관련해 응답자 631명 중 273명(43.3%)이 자원봉사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한국갤럽이 2002년 국민 10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난 17.4%보다 25배 가량 높은 것이다.

자원봉사 횟수는 월 1~4회(54.5%)가 가장 많았으며, 한 차례 자원봉사에 들이는 시간은 평균 3.7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자원봉사자가 평균 두 달에 한 번 3.5시간 활동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2004년 통계와 비교해 자원봉사 횟수는 많고 1회 봉사활동 시간은 거의 비슷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20~30대

가 40~50대보다 참여율이 8%가량 높았으며, 횟수는 40~50대가 가장 많았다.

후원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19명(50.6%)이었으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38.5%에 달해 후원문화가 아직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로는 여성(53.2%)이 남성(46.9%)보다 다소 높았으며, 연령층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아 경제적 안정이 후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장기기증을 했거나 서약을 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1.4%인 72명이었다. 또 전체응답자의 47.3%인 299명이 장기기증을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장기기증(서약을 했거나 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2002년 삼성서울병원 조사결과 29%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기증 또는 서약을 했다는 응답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9.3%로 가장 많은 반면 40대는 3.5% 50대는 5%에 그쳤다. 성별로는 이미 기증(서약)했거나 할 의사가 있다는 양쪽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있는 불자는 응답자의 35.7%인 225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42.9%가 전문지식을 나누는 경험이 있다고 답한데 비해, 여성의 경우는 31%만이 그렇다고 답해 남녀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눔을 통해 삶의 가치와 만족감을 찾으려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5월8일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을 서원하며 전국에서 연등축제가 열렸다. 사진은 서울 연등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 '대동한마당'에 참가한 불자들이 환호하는 장면. 사진=고영배 기자

“이웃과 함께 환희의 축제”

8일 서울 등 전국서 봉축행사… 화합의 연등 한마당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가 5월 8일 서울,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성대히 봉행됐다. 서울 동대문야구장에서 봉행된 연등법회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오늘 우리가 밝히는 등불은 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 나아가 일체중생 모두가 부처님의 본성을 간직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등불이며,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사랑과 봉사를 다짐하는 원력의 등불이며, 불퇴전의 용맹심으로 대자대비를 실천하기 위한 정진의 등불”이라고 개회사를 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조국통일기원 남북(북남)불교도 동시법회 공동발원문 봉독에 이어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과 회정 진각종 총무원장은 기원문을 통해 “이웃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나눔으로 하나가 되는 부처님의 사랑방은 불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발원했다.

오후 7시부터 동대문 야구장에서 출발한 제등행렬은 불자들이 시민·외국인 등 30만명이 동참한 가운데 초전법륜등을 위시한 수백 가지의 화려한 상징등과 10만여 개의 등불을 앞세우고 서울의 밤거리를 수놓았다. 남동우 기자

지면 안내

봉축특집 64면 발행

A

- 특집 1 나눔
 - 나눔지수 설문결과/나누며 사는 사람들 3-6면
 - 조계종 원로의장 종산 스님 특별인터뷰 7면
 - 지상중계 -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11면
- 각종단 대표 봉축영어 14-15면
- 연등축제 화보 16-17면
- 부처님오신날 공휴일제정 30주년 22면
- 모정불심, 손수건 보시하는 대덕회보살의 사연 26면

B

- 특집 2 느낌
 - 의식주에서 찾는 느낌 2-3면
 - 느끼며 사는 사람들 4면
- 특집 3 과학의 시대, 불교는?
 - 아인슈타인 상대성이론 발표 100년 되짚어 불교와 과학의 관계 맞기 13면
 - 좌담 - 불교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14-15면
- 세미나 지상중계
 - 불사,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아름다움 26-27면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스크린세이버 무료 보급

* 컴퓨터 모니터상에 봉축 사진과 그림, 법문을 담은 스크린세이버를 설치해 부처님오신날의 참뜻과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내용 : 부처님 생애(팔상성도), 테마별 봉축행사, 경전 및 스님법어
www.buddhapia.com / www.buddhanews.com에서 다운 가능

‘할’



그림·조태호

정광 스님의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 B16·17면에

2549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나눔으로 하나 되는 세상’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온 누리에 비치고, 대자대비심이 세상속에 가득하여
모든 가족은 화목하고, 사회가 안정되며 세계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종 정 도림 법전

원로의장	종 산	총무원장	법 장
중앙중회의장	법 등	교육원장	청 화
호계원장	월 서	포교원장	도 영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